

자연재난 때 중대본 더 빨리 가동된다

행안부, 태풍·호우 피해 최소화 방안 확정 예정

국민 알 권리 보장 위해 정보제공 횟수 1회 확대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법정부적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더 빨리 가동된다.

국민에게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횟수도 한 차례 더 늘린다.

전국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의 위험도를 3개 등급을 나눠 통제·관리하고, 풍수 피해 지역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66억원을 들여 연구개발(R&D) 중인 '풍수피해예측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김계조 재난안전관련부장(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태풍·호우 피해 최소화 방안을 확정한다고 2일 밝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응과 복구·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구다.

예측이 어렵고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불러오는 사회 재난은 종전대로 비상단계 구분 없이 중대본을 즉각 편성한다.

기상 특보에 따른 예측이 가능한 자연 재난의 경우 재난 상황에 따라 비상단계를 종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중대본을 구리게 된다.

지금껏 자연 재난이 우려될 때 행안부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다가 3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특보가 발령돼서야 중대본 1단계에 들어간 뒤 전국적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최고 수위인 2단계로 전환했다.

기상 상황과 재난 발생이 확대되지 않는 한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인력을 동원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는 중대본 가동 요건을 '4개 이상 시도에서 기상특보 발령시'로 높이되, 행안부 비상근무 없이 즉각 중대본 1단계에 돌입해 법정부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재난대처상황 정보제공 횟수는 하루 4회(오전 6시, 오후 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에서 5회(오전 6시, 오후 11시, 오후 4시 오후 7시, 오후 11시)로 1회 더 확대한다.

행안부는 또 태풍·호우로 둔치주차장 주차차량의 침수가 우려될 때 차량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사업을 시작한다. 매년 반복되는 둔치주차장 차량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연내 24억6000만원을 들여 10곳에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는 30대 이상 주거가 가능한 127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둔치주차장 252곳과 지하차도 148곳을 위험도에 따라 3개 등급화해 통제·관리도 한다. 관리가 시급한 19곳(둔치주차장 10곳·지하차도 9곳)에 먼저 차량번호·인식기와 폐쇄회로(CC)TV, 배수펌프 등을 단다.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협업해

모바일 커뮤니티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대피 안내체계를 갖춘다.

홍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특보지침을 현재 55곳에서 60곳으로 늘린다. 홍수 조절용량 추가 확보를 위해 화천댐 제한 수위를 3m 낮추고, 괴산댐 방류 승인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율리 재난 상황관련 때 '재해상황분석 시스템'을 도입·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과거 태풍·호우 피해 사례를 전산화 해뒀다가 필요 시 자동표출시키는 것이다.

풍수 피해 지역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66억원을 들인 '풍수피해예측 시스템'은 연내 개발과 상용화를 거쳐 내년 중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증가 추세인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국민행동요령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한다.

김 차관은 "재난에 제대로 대응 하려면 시진 대비가 중요하다"며 "국민들도 여름철 기상 상황에 관심 갖고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을 준수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서울시쓰레기줄이기운동본부 등이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세계 플라스틱 안 쓰는 날 기념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1회용품 안 쓰는 장례문화 만들기'를 촉구하고 있다.

극단적선택 구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경찰·소방에 의무제공

포털·커뮤니티·온라인쇼핑몰 등 요청시 협조해야

이달 중순부터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데도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살예방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조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 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이율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유족을 지원할 때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대상자에게 쉽게 설명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시나 녹음, 서면 등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장영진 복지부 차관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 제공과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제공자는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하는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해당 제공자는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타인 주거침입 시도 만취 2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10분께 광주 동구 한 다세대주택 3층 B(34)씨의 집에 침입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려다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건물 외벽 구조물 등을 이용해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A 씨는 B 씨와 그 이웃인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출입문을 통해 B씨의 집을 나온 뒤 건물 주변을 서성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动机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왜 천천히 운전해" 노인 폭행 10대 입건

전북 익산경찰서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71)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천천히 가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A군이 했던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 블랙박스를 통해 A군의 범행을 확인, 이후 A군의 행적을 추적해 붙잡았다.

심야시간 상습 주차차량털이 20대 구속

심야시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25·무직)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파주시 단현면 일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26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5분께 단현 일대에서만 유사 절도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접복에 걸려 결국 구속됐으며, 이날 검거 직전에도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만6000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버스운전자 주행 중 쓰러져 숨져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고속버스의 60대 운전자가 숨져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경남 김해시 도동면 중앙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 A(64)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고속버스는 속도를 줄여 다행히 사고를 면했으나 당시 버스에는 승객 3명이 타고 있어 차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운전기사 A씨가 사고를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인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탑승객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내에 흉기 휘두른 정신질환 80대 강제 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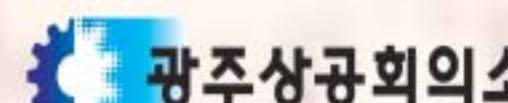
평소 정신질환을 보이던 80대 남성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8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82)씨를 흉기로 내려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머리와 팔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내가 병원 입원을 권유하자 이에 거부하다 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상공회의소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